

국민을 쓰레기통 뒤지게 하는 무책임한 권력자

태평로



김태훈
논설위원

순전히 책임감 때문에 남다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있다. 서기 4세기 로마 황제 콘스탄티우스 2세가 그런 사람이었다. 콘스탄티우스 2세는 사촌 동생 율리아누스가 반란을 일으키자 군사를 일으켜 응징에 나섰다. 그런데 도중에 중병에 걸리자 율리아누스를 제거하려던 마음을 바꿔 후계자로 지명한 뒤 죽었다. 당시 로마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침략에 시달렸다. 제왕에게 나라를 보전하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 로마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황제는 비록 반란군 수괴였지만 군사적 재능이 탁월했던 율리아누스에게 권좌를 넘긴 것이다.

제위에 오른 율리아누스도 주어진 책임을 온전히 떠안았다. 외적의 침범에 대비하기 위해 황궁의 사치를 금하고 재정 지출을 줄여 국고를 채웠다. 전쟁터에서 늘 선봉에 섰다. 그러다 마지막 전투에서 적병이 던진 창에 맞아 병사들 보는 앞에서 전사했다. 그가 제위에 머문 기간은 고작 20개월이었다. 하지만 책임 있는 통치가 남긴 효과는 오래갔다. 이후 사산조 페르시아는 100여년간 로마를 건드리지 않았다.

조직 경영 관련 용어 중 하나인 '스킨 인 더 게임'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따른 실패 위험과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뜻이다. 저명한 경영 이론가 나심 탈레브는 동명의 저서에서 리더를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전문 경영인을 리더라 부르지는 않는 것은 책임감의 깊이가 오너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정부 5년간 '이러고도 나라가 존속할 수 있다' 격정할 정도로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 반복됐다.

국민연금기 존속하려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도 아는 이다. 그런데 지난 정부 5년간 '이러고도 나라가 존속할 수 있다' 격정할 정도로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 반복됐다.

국가에 대한 리더 책임 끝없이 해야 할 개혁 과제 넘쳐나는데 박수 받을 욕심에 외면한다면 가난의 쓰레기통이 기다릴 뿐이다. 그 뻔한 개정 건의를 지난 정권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그 결정을 한 대통령은 박수와 지지율이란 열매만 따 먹고 국민 부담 증가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권좌를 떠났다. 교육·노동 개혁도 외면했다. 제기되는 여러 비판에는 통계 조작으로 대응했다. 마치 5년 후엔 세상이 없어지는 것처럼 행동했다.

반영의 꽃을 찬란히 피워낸 나라라면 공동점이 있다. 리더가 국가의 현재와 미래까지 무한 책임진 나라는 흥했다.

고 외면한 나라는 망했다. 리더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한 사례도 있다. 고대 아테네의 공금 약용 죄는 나랏돈 횡령이나 유용을 다스리는 법이 아니었다. 잘못된 정책으로 공적 자원을 헛되이 낭비했을 때 적용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미숙한 일 처리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면 처벌했다. 정책 입안자는 먼 훗날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결과까지 신중히 살펴서 정책을 짜야 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왕은 '눈에는 눈' 같은 복수법이나 만든 인물이 알려졌지만 오히려 함무라비 법전에 '건축업자가 집을 잘못 지어 입주자가 죽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집을 지어 팔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뜻이다. 집을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했다. 건축가는 붓길을 초래할 모든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국가 정책도 다를 게 없다.

아옌데 대통령 시절 칠레는 구두끈 값까지 나라가 정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는 무장 군인과 함께 전자상가에 들어가 제품이 낮은 가격표를 붙였다. 이런 쇼나 했지, 공장을 더 세워 생산을 늘릴 고민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애민(愛民) 대통령을 자임했지만 정작 국민을 데려간 종착지는 낙원이 아니라 남이 버린 음식을 주워 먹는 쓰레기통이었었다. 쓰레기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나라의 미래에 눈감는 리더, 그런 지도자에게 박수 치는 국민 옆에 있다.

김준의 맛과 섬 [127]

밀양 자연한천

한천은 황태처럼 추운 겨울에 얼고 녹이기를 반복해서 만든 우무를 말한다. 실처럼 가늘고 긴 실한천과 각진 직육면체의 각한천 그리고 분말한천이 있다. 우무는 우뚝가사리나 피사래기처럼 세포빅 구성 성분이 점액질인 다당류로 된 홍초식물로 만든다.

뜨거운 물에 몇 시간을 끓여서 찌꺼기를 걸러낸 다음 응고된 우무를 20여일 얼려 완성한다. 과거에는 대구, 부산, 목포 등 지역에 자연 한천 공장이 있었다. 지금은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에 유일하다.

그곳에는 가공 공장과 한천박물관과 한천 전문 레스토랑(마중)과 판매장이 있다. 밀양 한천은 제주도 하도 지역 해녀들이 봄철에 채취한 우뚝가사리를 이용한다. 좋은 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형, 기온, 수질 등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 배산임수 형상에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가 한 달여 지속되어야 한다. 여기에 물이 좋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 지역이 밀양 산내면이다. 주변은 영남알프스 돌리싸고 그 안쪽으로 산내면을 아우르는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식품은 물론 군수품 등으로 조선총독부가 수급과 판매를 통제했다.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해 수출품 1호로 판매되어 부족한 물자 구입 비용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6·25 전쟁 후엔 중석과 함께 한천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품목으로 외화 획득은 물론이고 식품 산업 등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한때 전국 10여 곳에 이르던 자연 한천 공장은 이제 밀양 한천 한 곳만 남았다. 기계로 우무



를 건조하는 공업 한천도 몇 곳 없다. 한천은 젤리·푸딩·양갱 등의 결화제나 아이스크림과 요구르트 등의 안정제, 샐러드와 우무공국 등으로 이용한다. 식품 산업만 아니라 의약품 시약, 조직배양용 배지로도 이용한다. 한천은 식이섬유가 톱보다 두 배나 많고, 포만감이 좋아 과잉 섭취를 막고, 생리 기능에 역할을 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이곳 식당에서는 한천을 이용해 냉도밀, 메밀비빔면, 어묵우동, 달걀, 풍국, 후식까지 내놓고 있다. 한천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한천박물관이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社 說

“이재명 방북 위해 300만달러 북에 제공” 김성태 충격적 진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9년 이 대표 방북을 위해 300만달러를 북측에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2019년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대납한 것 이외에 이 대표를 위해 추가로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 대표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 측근이다. 방북을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북과 거래하고 뒷돈을 줬다는 충격적 진술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다. 하지만 드러난 정황을 보면 그 말을 믿기 어렵다. 쌍방울은 경기도가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주최한 남북 교류 행사 비용으로 수익원을 줬다. 김 전 회장은 2차 행사 직전인 2019년 5월 중국에서 북측 인사를 만나 광물 개발 사업권을 받고, 같은 달 이 대표는 북한 조선아태평화위 위원장 김영철에게 자신을 북으로 초청해달라는 문건을 보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가 주최한 남북 교류 2차 행사 때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리호남을 만나 “이 대표 방북에 협조해달라”며 300만달러 제공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 행사를 총괄하고,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을 얻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 이화영 전 부지사였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게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쌍방울의 자금 밀반출은 상당 부분 입증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800만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했는데, 직원들이 관련 사실을 다 인정한 상태다. 검찰이 이런 증거를 제시하자 김 전 회장이 인정했다고 한다. 진술도 구체적이다. 2019년 7월 북한 리호남은 애초 “(이 대표가) 방북하려면 벤츠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한다”며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이 현금 마련이 어렵다고 해서 300만달러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런 진술을 모두 지어낸 어려운 일이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한다. 2019년 1월 중국에서 열린 한국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김 전 회장을 바꿔줬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이 대표가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표는 “김성태 얼굴도 본 적 없다”고 했고,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고 했다.

과거 김대중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4억5000만달러를 북측에 불법 송금했다가 관련자들 모두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도 또 북한을 이용해 정치하려고 뒷돈을 주는 일이 벌어졌다면 개탄할 일이다. 이리니 북이 우리를 농락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유엔 대북 제재 위반 문제도 걸려 있다. 이 일의 실체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동영상 시청

39년 전 도입한 지하철 무임승차, 바꿀 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는 4월쯤 지하철과 버스 요금 300~400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근본적 해결 방법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은 적자 때문인데 무임승차가 적자의 큰 원인인 것이다.

서울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광역 자치단체들은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의 연평균 손실은 1조3165억원 중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5411억원으로 약 41%”라며 “지자체 재정만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평균 손실 7449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3236억원이 무임 손실이라고 한다. 무임승차 제도를 이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제도를 1984년 처음 도입할 당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5.9%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 18%로 높아졌고 2040년에는 35%로 경총청 전망이다. 35%면 국민의 3분의 1이 넘는다. 3분의 1 이상이 무임승차하면 그런 지하철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나. 이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고령층의 건강도 좋아졌다.

우리처럼 특정 연령 이상 100%에게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게 하는 나라는 도시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미국은 주에 따라 지하철 요금의 30~50%를, 프랑스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20~80%를 할인해주고 있다. 일본은 도시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70세 이상 중에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액을 깎아준다. 영국의 경우 피크 시간엔 무료가 아니다.

우리가 39년 전에 도입한 이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국민 세금으로 또 매꾸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세금을 퍼부어 해결하면 재정이 남아날 수가 없다. 결국 다 빚으로 국민에게 돌아온다. 하지만 당장 반발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맡기면 이런 식의 인기 영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점차 높여가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교통량, 시간대에 따라 무임승차 시간이나 할인 폭을 달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

‘세금 알바는 지속 불가능’ 문 정부 5년의 교훈


고용노동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 일자리를 창출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업 급여 등 현금 지원을 줄이고 대신 직업 훈련을 비롯해 구직자의 근로 능력을 높이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했던 이른바 ‘세금 알바’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 주도의 고용 창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며 공공 일자리 수를 5년 사이 40만개 이상 늘렸다. 일자리 예산도 5년 새 2배로 늘려 2021년엔 30조원을 넘어서었다. 반면 같은 기간 500대 민간 기업의 일자리는 8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공 부문 일자리 비율이 10%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렇게 급증한 공공 일자리의 질이 낮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이었다.

빈 강의실 불 끄기, 담배꽂초 줍기, 놀이터 지킴이 등 일자리

갈지도 않은 초단기 세금 알바를 양산하면서 고용 숫자를 늘리는 데만 주력했다. 그 결과 2017년 96만명이던 주 15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 수가 2021년 150만 명을 넘었다. 2013~2017년에 늘어난 취업자 중 주 15시간 미만 비율은 연평균 9.9%였지만 2018~2022년엔 45%로 뛰어올랐다. 새 정부가 2021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점검한 결과, 169개 사업 가운데 중복, 낮은 취업률 등의 이유로 ‘개선·감액’이 필요하다고 판정 내린 사업이 70개(41%)에 달할 정도였다.

문 정부의 세금 일자리 정책은 고용이 아니라 노인 복지 사업이었다. 60대 이상 노년층에게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게 하고 용돈 수준 현금을 쥐여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정책이 지속 가능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문 정부 5년이 보여주었다.




newdaily.co.kr

‘국민의힘’ 당원들은 택하라...

'윤석열의 국민의힘' 이냐 '안철수의 국민의힘' 이냐

윤석열 대통령,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떨어지면 바로 식물된다.
"자유 향해 달리다 추락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야"



나경원 이후,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야 하나? 누구를 국힘 당 대표로 뽑아야 하나?

나경원 불출마 선언 후의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탄 호랑이가 달리는 방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그 호랑이가 자유의 지평을 향해 뛰고 있으니 말이다.

자칫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화한다. 자유대한민국 회복 투쟁, 자유민주주의 회복 투쟁도 식물화한다. 그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이유다.

3.8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 최고위원으로는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 2024 총선을 앞둔 공천관리 위원회는 또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 여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탄 호랑이의 질주는 둘 중 하나에 이를 것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와 8.15 경축사가 밝힌 '정통 자유주의 국민의힘'이 되든가, 아니면,

(2) 정통 자유주의라고 밝히지도 않고, 중도좌파중도우파라고 밝히지도 않는, 그래서 이념적 제자리가 불확정(不確定)적인 '안철수의 국민의힘'이 되든가, 둘 중 하나다.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은 답해야 한다. (1), (2) 중 어떤 국민의힘을 만들려 하는가? 선명한 자유주의 국민의힘인가, 이와는 다른 중간 어디인가에 있을 국민의힘인가?

안철수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던 때의 안철수와는 현저히 달라졌다. 그 변화를 환영한다. 그가 3.9 대선 막바지에 윤석열을 지지한 것도, 평가한다. 그러나


그가 엄밀하게 누구인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당신의 이념적 호적(戶籍)은 어디인가?"

이 질문이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 모두에게 예리한 칼끝처럼 겨뤄져야 한다. 왜?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수호냐, 인민민주주의의 주사파 혁명이나의 사생결단이 결정에 달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낙동강 다부동 전투 현장에서 중간이 있을 수 있나?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1월 26일 게재 되었습니다.